



한글로 표기된 목록 카아의 배열에 대하여

이 철 교
동국대학교도서관

1. 머리말

목록은 도서관에 있는 자료에 대한 기록이며, 그 자료를 이용하는 열쇠다. 곧, 목록은 어느 한 자료가 다른 자료와 구별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일정한 원칙 아래 기술하고 일정한 원칙 아래 배열한 것으로서, 그 자료에 대한 관리 수단의 기능과 검색 수단의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도서관 자료의 정리 작업에 있어서, 그 자료의 올림말[標目—heading]을 설정하고 그의 형식을 잡아주거나 서지적 사항을 기술할 때에 준용해야 할 편목 규칙(Cataloging code)과, 이에 의하여 작성된 카아드들을 차례잡을 때에 준용해야 할 배열 규칙(Filing code)은 분류표나 주제명 표목표에 못지 않은 기본적인 연장(tool)인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1962년도 사업의 하나로 목록 규칙의 제정이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4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1962년도에는 그 중 1)표목의 선정과 2) 표목의 형식을, 1963년도에는 3) 기술 목록 규칙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4) 목록의 편성도 완성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64년에 ‘韓國目錄規則’이 간행되었으나,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목록의 편성만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기본을 이루는 배열문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과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각종 도서관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어떤 성문화된 규칙이 없이 저마다 관례에 의하여 또는 서로 다른 규칙을 응용하여 배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목록 카아드에 있어서 배열 문제는 그 기능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낱말의 카아가 아무리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열이 비합리적이거나 일정하지 못하면 열쇠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열은 무엇보다도 찾아보기에

편리해야 하며, 그래야만 실용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찾아보기에 편리하려면, 목록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느니만큼 관용을 따르는 것이 좋고, 또 이 론적으로도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도서관에서 편성되고 있는 목록들은 그 배열 기준이 통일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각종 도서관의 목록이 배열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배열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이용자에게 주는 불편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끝내는 목록 카아드 자체도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한낱 휴지 조각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필자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동안 배열의 실무에 있을 때나 또는 검색에 대한 물음을 받을 때마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배열 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관한 선진들의 논고와 기간 사전·목록·색인류에서의 배열 순서를 눈여겨 보았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최선의 배열 방법을 찾아 보려 한다.

2. 배열어의 문자 문제

韓國目錄規則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 목록 규칙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표준이 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었다.¹⁾ 곧

- (1) 標目的 形式을 한글로만 한다.
- (2) 外國人名, 書名等은 飜字標目으로 한다.
- (3) (2)의 경우에는 飜字標目만을 쓴다(즉 限定語는 使用하지 아니한다)
- (4) 句讀點을 使用한다.
- (5) 姓과 이름 사이는 ‘만드시’ 콤마를 使用한다.
- (6), (7) 생략.

여기서 말하는 올림말[標目]이란 한 著錄[記入—entry]의 맨 머리에 와서 그 저록의 배열 기준이 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여러 단어의

1) 韓國目錄規則／韓國圖書館協會 編. 一修正版. 一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 p. vi.

語群일 수도 있다. 句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문장을 이룰 수도 있다. 따라서, 韓國目錄規則은 그 제정 당초부터 일원화 목록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록의 일원화에는 상반되는 두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한글의 로마자화(Romanization)와 이에 대한 로마자의 한글화(Koreanization)같은 것이다. 로마자화는 한국어 자료에 대한 저록의 올림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요, 한글화는 서양어 자료에 대한 저록의 올림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다.

물론 목록 카아 배열의 일원화—특히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목록 체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서로 발음 체계가 다른 언어와 문자를 잇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순조롭지 않아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또는 한글의 로마자화 표기법은 그 종류도 다양하며, 아직 확정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각급 도서관에서의 이 방법의 일반화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국내 이용자를 위한 서지 목록의 경우, 한국어 자료에 대한 저록은 그의 올림말을 한글로 표기하여 그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며, 서양어 자료에 대한 저록은 그 자료에 쓰인 로마자로 직접 기입하여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이원적인 자모순 배열법을 취하고 있다. 곧, 한글과 로마자가 다같이 배열어의 문자로 병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벌의 순위는 보통 한글의 자모순을 먼저 놓고 로마자의 자모순을 나중에 놓는다.²⁾

그런데 도서관계의 한쪽에서는 목록의 일원화라는 이상 아래 한국어까지를 포함한 모든 언어를 로마자로 통일하여 표기하자는, 이른바 로마자 표기론을 내세우고 있으며,³⁾ 한국어 자료에 대한 저록의 올림말을 문교부식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로 번자하여 단어 단위에 의한 배열을 하고 있는 실예도 없지 아니한다.

물론 로마자는 이미 로마의 문자거나 서양의 문자가 아닌 문명 세계의 극적 없는 보편 문자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론은 학술 연구 및 서지 통제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통일이라는 긍정적인 일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면에 로마자화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게 된다.⁴⁾

(1) 로마자는 발음 체계가 한글에 과부족하여 발음과 표기가 반드시 부합되지는 아니하며,

(2) 일반 대중들이 결정적인 수궁 내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 표기법이 보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3) 인명 표기에 있어서는 각자가 사용하는 개인적인 로마자 표기가 있는데,⁵⁾ 이 표기는 각자의 성명과 같아서 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4) 한글 원형에로의 복원, 곧 정확한 재번자는 이로서 손쉬운 字母文字[音素文字—phonemic writing] 상호간에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5) 로마자화 표기법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원어에 정통한 사서라 하더라도 번자 과정에서의 착오와 실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6) 현재와 같이 한글의 띄어쓰기법이 일정하게 굳어지지 아니한 상황 아래서는 단어 단위의 배열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7) 또한 한글이라는 훌륭한 고유의 문자를 지닌 문화 민족으로서의 주체성과 사상성의 문제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⁶⁾

필자는 위에서 든 몇 가지 이유에서 목록 카아 배열의 일원화—특히 한글의 로마자화 표기에는 반대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각 문자별 또는 언어별로 분리하여 배열하는 다원화 목록의 편성을 지지하는 입장이 된다. 다만, 중국어 자료와 일본어 자료는 한자를 전용 또는 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자료와 혼합 배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중국 및 일본의 인명, 단체명, 서명의 표기 문제

東書—韓·中·日 자료에 대한 저록은, 종래에는 올림말은 도서에 기재된 그대로 기입하되, 그 위에 한글(또는 로마자)로 발음을表記하여, 이 標記로써 배열 순서를 결정하였다.⁷⁾ 이 경우에 漢字만으로써 올림말이 된 것은 모두 우리음으로써 통일하여 표기하였으나, 다만 일본 도서로서 한자와 가나(假名)를 혼용하여 올림말로 한 것은 모두 일본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韓國目錄規則에서는 한자로 된 서명을 올림말로 선정한 때에만 이런 표기 형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2) 한글 로마자화의 서지목록법에 있어서의 문제점/리재철. -도협월보, May 1976 (vol. 17, no. 4). -p.7.

3) 圖書編目上 標目の 表記에 關하여 : 特히 大學圖書館의 目錄에 있어서 / 柳東烈. -國會圖書館報, 1965年 3月(第2卷第3號). -p. 22~28.

4) 文字의 表記와 世界文獻統制 / 한스 H. 웰리시 著; 朴令淑 譯. -도협월보, Jul.-Aug. 1976 (vol. 17, no. 6). -p. 19~26을 참조.

5) 金活蘭(교육자)은 Kim, Helen으로 鄭寅燮(영문학자)은 Zöng, Insöb으로

6) 韓國古書目錄의 問題點과 方向 : 實務를 通한 提案 / 尹炳泰. -도서관, 1974년 6월(제29권 제6호). -p. 34.

7) 朝鮮東書編目規則 = K.C.R. / 朴奉石 編. -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 4281[1948].

東書目錄規程 : 草稿 / 朴熙永 編. -서울 : 國立圖書館, 檀紀 4288[1955].

있으며, 저자를 올림말로 선정한 때에는 처음부터 한글로 기입하며 이것이 그대로 배열의 기준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중국 및 일본의 인명, 단체·기관명, 서명을 중국음 및 일본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느냐 또는 우리음으로 읽어 한글로 표기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 더군다나, 중국의 普通語나 일본의 가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망설이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시대적인 구분은 그어, 그 이전까지의 자료는 우리음으로, 그 이후부터의 자료는 중국음 및 일본음으로 읽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예이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중국어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곧, 중국의 인명, 단체명, 서명은 한자를 우리음으로 읽어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 자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방법이 쓰여지고 있다. 저자나 서명이 모두 한자로만 쓰여 있을 때에는 우리음으로 읽어 배열하되, 가나가 섞여 있을 때에는 일본음으로 읽어 배열하는 것이 그 제Ⅰ유형이요, 저자나 서명이 모두 한자로만 쓰여 있거나 가나가 섞여 있거나를 가릴 것 없이 언제나 일본음으로 읽어 배열하는 것이 그 제Ⅱ유형이요, 저자나 서명이 모두 한자로 쓰여 있을 때에는 우리음으로 읽어 배열하고, 가나가 섞여 있을 때에도 한자를 켜 가나만을 일본음으로 읽어 배열하는 것이 그 제Ⅲ유형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이론적으로는 어색함이 없지 아니하나, 실용의 면 때문에 제Ⅲ유형을 지지한다. 첫째, 韓·中·日 자료가 동일한 원칙 동일한 讀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가 상이한 장소로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둘째, 한글화 표기법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일본인들 자신조차 골머리를 앓고 있는 難讀姓氏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며, 넷째, 보라 참조 카아드의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다섯째, 무엇보다도 편목과 배열 그리고 검색 과정에서의 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네들의 의태어 표기만은 우리의 의태어 표기법에 따라 고쳐 읽어 배열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경우에는 저네들의 표기에 따른 보라 참조 카아드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동양인명—韓·中·日 人名의 올림말로서의 기입 형식에 관한 문제다. 韓國目錄規則 第42條 通則에 보면 ‘個人著者は 本名을 姓부터 記入하고 姓과 이름 사이에 콤마(Comma)를 찍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철님과 鄭駉謨님들의 충분한 논고가 있다고 본다.⁸⁾ 한마디로 성과 이름 사이에 콤마를 찍는 것

은 동양인의 관용에 어긋나는 것이며, 배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곧, 동양인명은 성·이름의 直順(direct order)으로 기입하되, 성과 이름 사이를 띄어쓰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배열에 있어서도 字順(Letter by letter)을 적용하면 그만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를 실례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⁹⁾

(1) 중국의 인명, 단체명, 서명

① 인명

‘司馬遷’은 ‘쓰마 쉐’가 아닌 ‘사마 쉐’으로

② 단체명

‘中央研究院’은 ‘중 양 연 쥬 위안’이 아닌 ‘중앙 연구원’으로

③ 서명

‘怎樣教勞作’은 ‘쩐 양 짜오 라오 쥬’가 아닌 ‘중앙교묘작’으로

‘富蘭克林自傳’은 ‘푸란클린 쥬환’ 또는 ‘부란클림 자전’이 아닌 ‘프랭클린 자전’으로

(2) 일본의 인명, 단체명, 서명

① 인명

‘望月一宏’은 ‘모치즈키 카즈히로’가 아닌 ‘망월 일굉’으로

‘生田みつ子’는 ‘이쿠타 미쓰코’가 아닌 ‘생전 미쓰자’로

② 단체명

‘慶應大學’은 ‘케이오오 다이가쿠’ 또는 ‘케이오오 대학’이 아닌 ‘경응대학’으로

‘お茶の水醫學會’는 ‘오차노미즈 이가쿠카이’ 또는 ‘오차노미즈 의학회’가 아닌 ‘오다노슈 의학회’로

‘ボイラ協會’는 ‘보이라 코요카이’ 또는 ‘보이라 협회’가 아닌 ‘보일러협회’로

③ 서명

‘源氏物語’는 ‘겐지 모노가타리’가 아닌 ‘원씨물어’로

‘目錄の作り方’은 ‘모쿠로쿠노 쓰쿠리카타’가 아닌 ‘목록노 작리방’으로

‘圖書館ハンドブック’는 ‘토쇼칸 한도북쿠’ 또는 ‘도서관 한도북쿠’가 아닌 ‘도서관 핸드북’으로

8)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이제철. -人文科學-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67년12월(第18號). -p. 65~92.

韓國目錄規則의 問題點과 그 改定의 前提/鄭駉謨. -도서관, 1974년 6월(제29권 제6호). -p. 10~12.

9) 이 예시는 이제철님의 ‘도서관 목록상의 중국 및 일본의 인명, 단체명, 서명의 표기문제에 관한 논의서’(1967년 7월10일)의 예시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깎다 (ㄱㅏㅓㅓㅓㅓㅓ)
 까귀 (ㄱㅏㅓㅓㅓㅓㅓ)
 깎다귀 (ㄱㅏㅓㅓㅓㅓㅓㅓㅓ)
 깎두기 (ㄱㅏㅓㅓㅓㅓㅓㅓ)
 깎정이 (ㄱㅏㅓㅓㅓㅓㅓㅓ)
 :
 가 (ㅏ)
 각각 (ㅏㅓㅓㅓㅓㅓ)
 가깝증 (ㅏㅓㅓㅓㅓㅓㅓㅓㅓ)
 가깝스로 (ㅏㅓㅓㅓㅓㅓㅓㅓㅓ)

이는 한글이 자모문자라는 데에 근거한 배열이다. 그러나, 한글을 풀어쓴다면 이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이상적인 터이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 문자를 이루는 음절문자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는 이상,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낯설어 실용에 불편이 심하다. 더군다나, 된소리가 예사소리보다 앞에 배열되어야 하고 초성 ‘ㅇ’을 문자로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 생기게 된다.¹⁹⁾

B 음절순 : 이는 각 음절을 단위로 하여 같은 자형끼리 차례로 인접 배열하는 방법인데, 최초의 우리말 사전인 文世榮님의 ‘朝鮮語辭典’(1939) 이래 모든 우리말 사전들이 이 배열순을 따르고 있다. 어쨌든, 한글이 음절문자로 운용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휘 배열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합당한 방법임에 틀림 없다.

음절순 가운데로 초·중·종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240여 가지의 배열 방법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²⁰⁾

Ba 자모순 : 모음 ‘ㅏ’를 자음 차례의 맨 뒤에 두는 방법이다.

Ba-1 가나다순 :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여 함께 배열하는 방식이다. 곧, ‘ㄱ’과 ‘ㄱ’을 같은 자리에 놓되, 다만 똑같은 자격일 때는 된소리를 뒤에 두게 된다. 金敏洙님의 Ba, 서정국님의 Ca 및 이재철님의 A가 이에 해당한다.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57), 국어국문학회의 ‘국어새사전’(1958), 신기철·신용철님의 ‘표준국어사전’(1958) 등이 이 배열순을 취하고 있으며, 金敏洙님과 서정국님 및 이재철님 모두 ‘실용적인 면’ 때문에 이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Ba-2 가까나순 : 된소리를 독립된 자모로 보고 예사소리가 다 배열된 뒤에 배열하는 방식이다. 곧, 된소리 ‘ㄱㅓㅓㅓㅓㅓ’를 독립시키되, 다만 그 예사소리 ‘ㄱㅓㅓㅓㅓ’의 바로 다음 줄로 삼아 배열하게 된다. 金敏洙님의 Bb, 서정국님의 Cc 및 이재철님의 B가 이에 해당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李允宰님의 ‘표준조선말사전’(1947), 李熙昇님의 ‘국어대사전’(1961),

한국어사전편찬회의 ‘한국어대사전’(1976) 등이 있다.

Ba-3 가하까순 : 이 방식도 된소리를 독립된 자모로 보고 별도로 배열한다는 점에서는 가까나순과 마찬가지로, 다만 이를 예사소리의 전체 자모가 다 배열된 다음에 줄을 잡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재철님의 C가 이에 해당한다. ‘한일 일한 종합사전’(1961)이 있다.

Ba-4 가까자순 : 이들 방식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배열순으로, 된소리를 그 예사소리의 줄 속에 포함시켜 배열하는 것이다. 서정국님의 Cc와 이재철님의 D가 이에 해당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文世榮님의 ‘朝鮮語辭典’(1936)이 있다.

Ba-5 가하아순 : ‘ㅇ’을 자음 차례의 맨 뒤 ‘ㅎ’ 다음에 두는 방식이다. 이는 받침 伊凝 ‘ㅇ’과 모음의 초성 伊 ‘ㅇ’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고안한 배열순으로서, 최현배님이 ‘한글의 차례잡기에 관하여’라는 논고에서 주장한 것이다.²¹⁾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교부의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잡기 조사’(1956)가 있다.

Ba-6 가까카순 : 된소리 뿐만 아니라 거센소리까지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여 ‘ㄱ(ㄱㅏ)’, ‘ㄷ(ㄷㅓ)’, ‘ㅂ(ㅂㅓ)’, ‘ㅅ(ㅅㅓ)’, ‘ㅈ(ㅈㅓ)’ 式으로 類音끼리 함께 배열하는 방식이다. 이는 [k] [p] [t] [tʃ]음을 갖는 외래어의 한글화 표기 방식의 다양에 따른 검색 방식의 다양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²²⁾ 裴亮瑞님의 ‘韓國外來語辭典’(1970)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음절순 배열의 각 유형별 실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²³⁾

가나다순	가까나순	가하까순
가격	가격	가격
가치	가치	가치
까치	각시	각시
깎두기	공항	공항
각시	깊이	깊이
꽁치	까치	나비
공항	깎두기	아들
깊이	꽁치	카지노
나비	나비	힌두교
아들	아들	까치
점질	점질	깎두기

19) ‘한글 사전의 말수 차례에 대하여/서정국’의 p. 205.
 20) ‘朝鮮語辭典에서의 語彙排列의 順序問題/崔鉉培’의 p. 20.
 21) 한글의 차례잡기에 관하여/최현배. -한글, 단기 4292 [1959]년 4월(통권 124호). -p. 25~28.
 22) 東西著者記號表 : 및 그의 사용법해설 /이재철 저음. -제2판.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3. -p. 12.
 23) 이 예시는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 연구/이재철’의 p. 47의 예시에 두 단어를 보탠 것이다.

카지노	카지노	꽁치
힌두교	힌두교	찜질
가까작순	가하아순	가까카순
가격	가격	가격
가치	가치	카지노
까치	각시	가치
각시	공항	까치
작두기	깊이	작두기
공항	까치	각시
꽁치	작두기	꽁치
깊이	꽁치	공항
나비	나비	깊이
아들	찜질	나비
찜질	카지노	아들
카지노	힌두교	찜질
힌두교	아들	힌두교

음절순 배열 가운데서도 가하아순과 가까카순은 현행 한글 자모의 순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배열법이 될 수 없으며, 가하카순과 가까카순 또한 현행 배열 순서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실용면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일찌기 도태되어 버리고, 현재로는 가나다순과 가까나순만이 남아 한글 배열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을 놓고 볼 때에, ‘ㄱ’과 ‘ㄱ’은 음성학적으로 調音位置는 같되 소리값은 서로 다른 완전히 독립된 음운이며, 자형도 별개라는 점에서,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구별하여 취급하는 가까나순이 가나다순보다 이론상 우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²⁴⁾ 또한, 整齊感의 면에서도 우위에 선다. 더구나, 현행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사전’이란 단원(pp. 28-35)에서도 가까나순에 따른 검색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과, 한글학회의 ‘중사전’(1958)과 ‘새한글사전’(1965)이 ‘큰사전’(1947-57)과는 달리 가까나순을 취하였으며, 신기철·신용철님도 ‘표준국어사전’(1958)에서는 가나다순을 취하였으나, ‘새우리말큰사전’(1974)에서는 가까나순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사전의 편찬 및 검색면에서 가까나순이 가나다순보다 훨씬 편리하고 합당한 방법을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현배님은 ‘중사전’에서 가까나순으로 고친 것은 “(1) 한글 24자의 독립된 권위를 인정하며, (2) 사전에서의 말수 찾기는 그 날 글자의 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이어서 “‘큰사전’에서 가령 ‘까’를 ‘가’의 무상(無常)한 변태로 생각하여, 그것에다가 독립적 자리를 주지 아

니하였음은 저 일본인의 일어 사전에서, 가령 ‘가行’을 ‘加行’의 일시적 변태로 보아, 그에 독립의 자리를 주지 아니하였음을 본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위와 같은 이유로 해서, 필자는 도서관의 목록 배열은 모두 가까나순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Bb 모자순 : 의식이전 무의식이전 알파벳의 영향에서 온 방식으로서, 모음을 자음에 선행하여 배열하는 것이다. 이는 1967년 5월 한글학회 제46회 정기총회에서 최현배님의 제안으로 발단되어, 1968년 5월 제47회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거론된 주장이다.²⁶⁾ 이를 요약하면;

Bb-1 모음과 소리값 없는 ‘ㅇ’을 맨 앞에 두고 받침 ‘ㅇ’을 맨 뒤에 둠(최현배님의 안)

Bb-2 모음과 소리값 없는 ‘ㅇ’을 맨 앞에 두고 받침 ‘ㅇ’은 종전대로 둠(부산지회 안)

Bb-3 모음과 ‘ㅇ’ 모두를 맨 앞에 둠(정인섭님의 안)

Bb-4 모음을 맨 앞에 두고 ‘ㅇ’ 모두를 맨 뒤에 둠(김계곤님의 안)

그러나, 모자순은 전통적인 자모순을 뒤집는 커다란 변혁이며, 한글의 본질적인 문자 체계를 부인하는 주장으로서 모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한글 자모는 애초부터 초·중·종 3성의 체계로 이루어졌고, 單字 14와 複字 5의 초성이 그 자모 배열의 선도며, 단자 10과 복자 11의 중성은 언제나 초성의 후속이며, 중성은 또한 중성에만 딸린다. 끝, 머리에 오는 초성만이 독립된 자모며, 모음인 중성은 실상 알파벳처럼 독립된 자모가 아니다.²⁷⁾ 그러므로, 모자순 배열은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과 요긴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字順과 語順

목록 카야드의 배열을 사전류의 어휘 차례와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목록 카야드의 배열은 단어 이하의 배열인 일반 사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왜냐하면 목록 카야드에서의 올림말은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여러 단어의 語群일 수도 있으며, 句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문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배열 체계에서도 자순과 어순(Word by word)의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속담을 예로 들면, 다음과

24)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 연구/이체철’의 p. 48.

25) ‘한글의 차례잡기에 관하여/최현배’의 p. 28.

26) 한글, 1968년 6월(통권 141호)의 p. 158의 한글신문 참조.

27) ‘國語政策論/金徵洙’의 p. 181.

같다.²⁸⁾

자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개구리도 읊쳐야 편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개구명에 망진치기
 개꼬리 삼년 묵어도 황모 못 된다.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때가 있다
 개 머루 먹듯
 개미 금탑 모으듯
 개미 쳇바퀴 돌듯
 개밭에 주석 편자
 개밭에 도토리
 개 벼룩 씹듯
 개 보름 쇠듯

어순

개 머루 먹듯
 개 벼룩 씹듯
 개 보름 쇠듯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개구명에 망진치기
 개꼬리 삼년 묵어도 황모 못 된다.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때가 있다.
 개밭에 주석 편자
 개밭에 도토리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개구리도 읊쳐야 편다.
 개미 금탑 모으듯
 개미 쳇바퀴 돌듯

(1) 어순 배열 : 도막진 낱낱의 단어를 단위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곧, 배열을 위한 기입중 배열어(Filing word)를 한 단위로 우선 책정하고 이들의 식별이 완료된 뒤에 다음의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열어는 올챙이밭의 첫 단어가 된다.

(2) 자순 배열 : 배열을 위하여 기입된 문자를 그 조직 순서에 따라 한 자 한 자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배열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열의 단위는 한 문자에 머무르게 된다.

자순과 어순의 장단점은, 이미 속담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자순은 언제나 기계적인 배열로 단순화할 수 있으나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장소에 집중되지 아니한

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어순은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장소에 집중되기는 하나, 배열어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하고, 저자명, 주제명 및 서명을 혼합 배열할 경우에는 이들의 배열어 구분을 규정하여야 하고, 그 순서를 결정시켜 주는 복잡한 규칙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구분이 명확치 못할 때에는 배열의 명료성이 상실되어진다는 단점이 있다.²⁹⁾

따라서, 단어의 단위가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띄어쓰기가 명확하지 못한 우리말을 단어 단위로 배열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본래 띄어쓰기는 단어의 단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단어 구분법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우리말에 있어서 단어의 규정 문제는 토나 어미의 자립성 및 構文의 단위성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처음 190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토와 어미를 다 독립 품사로 세우는 분석적 제 I 유형, 1930대에 시작된 것으로 토는 독립 품사로 세우나 어미는 독립 품사로 세우지 않는 절충적 제 II 유형, 194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토나 어미를 다 독립 품사로 세우지 않는 종합적 제 III 유형이 그것이다.³⁰⁾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모든|꽃|이|매우|곱|다 I (6단어)
- 모든|꽃|이|매우|곱|다 II (5단어)
- 모든|꽃|이|매우|곱|다 III (4단어)

이처럼 단어에 대한 규정이 다양한 만큼 띄어쓰기도 일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 7장 띄어 쓰기 제 61항의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윗 말에 붙이어 쓴다. ...다만, 문장의 앞뒤 관계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를 적당히 붙이어 씀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우선 단어와 토의 견해부터 엇갈리게 되며, 띄어쓰기의 원칙과 예외, 붙여쓰기의 허용과의 한계를 갖기가 애매하고 모호하게 되어 있다. 한자 어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띄어쓰기법을 취택하거나 또는 이를 제정해 놓아도 그 방식을 하나의 오류없이 엄격히 따라 기입할 수 있는나가 문제이며, 설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순 배열의 경우, 일반이 자연 그 방식을 좇아 검색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그 띄어쓰기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일반인이 찾는 위치와 판이한 자리에 꽃혀 영영 이용되지 않을 카아드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³¹⁾

28) 이 예시는 '國語政策論/金敏洙'의 p. 182의 예시를 옮겨 쓴 것이다.

29) 圖書館實務便覽/韓國圖書館協會 編. -서울:韓國圖書館協會, 1966. -p. 517.

30) 國語文法論/金敏洙 著. -서울: -潮閣, 1971. -p.75.

31)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료 연구/이계철'의 p. 43.

